

2017 동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경상북도 경주시
- 양남지역아동센터



2018. 1

다양한 종류의 교육봉사를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여 지금 거의 6년차에 접어들었지만, 항상 느끼는 것은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보다 내가 아이들로부터 배워가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 역시 그러했다.

대학교 1,2학년 때 하던 봉사활동과는 또 다르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이번 봉사활동에서 느꼈다. 그 이전에는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2학년을 마치고 하게 된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 이전까지는 아동에게 친근한 언니·누나, 모범적인 어른이 되고자 노력했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아동이 어떠한 상처를 갖고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여 파악하고, 그러한 아동의 모든 면을 고려하여 행동, 말투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성장한 기분이 든다. 또한, 비폭력 대화, 기린 대화법, 문제해결 방법놀이(Problem-based learning) 등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 이화봉사단은 역사교육에 초점을 두고 내려갔는데, 미술활동, 체육활동 등 역사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비교적 쉽게 역사를 접근시킨 것 같다. 단, 경주라는 특수성을 가진 지역적 배경을 좀 더 고려하여 앞으로의 역사 교안에서는 단순히 서울, 한양, 조선시대 중심이 아닌 다양한 역사 시대를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양남지역아동센터는 2009년 생긴 이래로 많은 아동들을 품어왔다.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도우려 하는 곳이다. 그곳에 단순히 1주일만 있었지만, 아이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배경을 파악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센터처럼 다양성을 가진 가정들을 더욱 존중하고 격려하는 센터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다.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신청한 교육봉사였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기 전부터 괜한 욕심이 생겨 팀원들과 여러 차례 만나며 프로그램을 기획했었다. 첫날 각자 소개를 마치고, 앞으로 진행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 아이들이 다짜고짜 “대학생 봉사단 올 때마다 명찰 만들어요”, “에코백 또 만들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만들었는데”라며 반복되는 프로그램에 지친 기색을 보였다. 아이들의 신난 모습을 기대했던 우리에게겐 적잖이 당황스럽고 힘 빠지는 반응이었다. 곧바로 상황에 맞춰 좀 더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정하긴 했지만 순간 아이들에겐 우리가 특별한 인연이 아니라 스쳐가는 대학생 봉사단 중 하나에 불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아이들에게 더 값진 기억을 선물하기 위해, 같이 뛰어놀고 이야기 나누면서 아이들 하나하나에 관심 가지고 칭찬을 많이 하려 노력했던 것 같다. 아이클레이나 각종 색칠도구를 이용하는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아이들은 오밀조밀한 작품을 만들거나 뽀뽀뽀하게 글씨를 적어 선생님들 선물이라고 주곤 했다. 그럴 때마다 고맙다는 말 한 마디에 환한 미소를 띠는 아이들을 보면서 때론 칭찬과 관심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더더욱 가슴에 와닿았다.

마지막 날 정든 아이들을 떠나려니 서운한 표정들이 눈에 밟혀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를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치고자 마음먹었었는데 학생으로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으로서 아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수연 학생, 수연 씨, 수연벗 등의 수많은 호칭에 이어 ‘수연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렸던 4박 5일 동안 아이들에게서 좋은 기운을 많이 얻은 것 같아 흐뭇하면서도 아이들을 다시 볼 날이 올까 하는 생각에 다시금 씩씩해진다.

김*민

예상은 했었지만, 센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와 다른 점이 많았다. 예상보다 아이들의 수가 10명 정도 많았고 나이대도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부터 중학생까지 너무 다양했다.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은 예상 시간보다 짧았다. 게다가 아이들은 우리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통제가 힘들었다. 당황스러웠지만 팀원들과 프로그램들을 주어진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서 진행했고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맞춰 진행하자 아이들도 잘 따라주었다. 준비해간 수업 자료를 다 활용하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지만 갑자기 바뀐 상황에 잘 대처했다고 생각해서 뿌듯하다.

과학 실험 키트를 진행하는 수업을 맡았었는데 다른 수업들과는 달리 과정이 복잡하고 시약을 이용해야 해서 아이들이 잘 따라주지 않을까봐 센터에 가기 전부터 걱정이 많았다. 그러나 생각보다 아이들이 설명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주고 규칙도 잘 따라주어서 아이들에게 너무 고마웠다.

아이들은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었다. 내가 작은 관심을 보이면 그 이상으로 나를 따라주었다. 5일 동안 피곤하고 힘든 때도 많았지만 나를 따라준 아이들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밝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좋은 팀원들과 의미있는 시간을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하다.

원*현

이화에 오게 된 후, 처음 하게 된 봉사활동이었다. 사실 처음엔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겨울 방학을 여름 방학처럼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무턱대고 신청한 것이었다. 그래서 가기 전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도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해도 되는건가?'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막상 센터에 직접 가보니 이런 걱정을 할 새도 없이 아이들의 질문과 돌발상황들이 닥쳐왔다.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학교 측을 통해 받았던 정보가 거의 다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든 계획을 바로 수정해야만 했다. 다행히 팀원들과 의견 교류가 빠르게 잘 되어 첫날 수업을 잘 마칠 수 있었지만, 다 같이 밤에 모여 그 다음날과 또 그 다음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계속 고민해야만 했다. 물론 이렇게 고민하면서 팀원들끼리 더 돈독해졌고, 더 나은 수업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만 학교 측과 센터 측에서 한번만 더 확인해줬다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의 재잘대는 소리에 정신없었고, 까칠한 반응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잘 따라줘서 수월해졌다. 또한 매일 밤 팀원들과 여러 얘기를 나누며 얻었던 느낌이나 생각들도 봉사활동 내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밥과 간식도 정말 맛있었다. 센터장님께서 직접 밥을 해주셨는데 정말 정말 정말 맛있었다. 매번 정말 감사했다. 센터 선생님들 모두 정말 감사하다.

같이 종이접기를 하며 나에게 선물해준 종이하트와 종이나뭇잎, 그리고 나를 그려주던 그 모습들, 나한테만 말하는 비밀이라며 속삭이던 그 모습들을 기억 속에 오래 새겨두고 싶다. 벌써 작은 기억들은 흐릿해져 너무 아쉽다. 2017년 가을, '이거 한번 해볼까?'하는 호기심에 내린 결정이 2018년 시작과 동시에 고마운 인연들을 만나게 해줬고, 뜻깊은 경험과 따뜻한 추억들도 남겨줬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주저않고 꼭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아이들도, 팀원들도, 나도 꼭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름에 이은 두 번째 이화봉사단이었다. 여름의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았던 터라 이번에 이화봉사단 모집 글을 보자마자 망설임 없이 신청했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많은 것을 얻고 온 것 같다.

센터에 처음 도착하여 첫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말았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낯을 많이 가리는 탓에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도 한 명 한 명 관심을 가져주며 질문을 던지니 묻는 말에 대답도 잘 해주고 그 다음 프로그램이었던 아이스브레이킹 때 서로 머리를 맞대며 문제를 풀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다. 그 이후에도 아이들은 우리가 준비해간 프로그램을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그 중에 가장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은 연 날리기였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아이들은 재미있다는 말을 연발하며 계속해서 뛰었다. 신나게 뛰는 아이들은 어린 시절의 나를 추억할 수 있게 해주었고 5일 동안의 프로그램 진행의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이어서 함께 봉사를 간 봉사단 팀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센터에게도 고맙다. 봉사 가기 전부터 수차례 회의를 하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경주에 가서도 밤마다 프로그램 보완점을 고민하고 프로그램 진행을 한 봉사 팀원들 모두 고맙다. 이번 봉사를 통해 소중한 인연을 만난 것 같다. 게다가 우리가 편하게 프로그램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숙소를 제공해주고 밥도 맛있게 해준 센터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센터의 협조가 없었다면 프로그램을 원활히 마칠 수 없었을 것이다.

5일의 봉사는 내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여름에 이어 이번 겨울도 내가 도와주러 간 봉사에서 오히려 얻고 오는 것이 많았다. 나중에 다시 올 겨울을 회상했을 때 봉사를 간 1월 넷째주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다. 이번 겨울 중 제일 추웠던 일주일이지 아이들 덕분에 따뜻하게 느껴졌던 일주일이기 때문이다.

기대 반 걱정 반인 마음으로 센터에 도착한 첫날에는 아이들과 처음 만난 반가움만큼이나 당황스러움을 많이 느꼈다. 센터와 학교가 연락 중에 착오가 있었는지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은 수의 아이들이 센터에 있었고, 프로그램 진행 시간도 예상처럼 딱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이들도 생각처럼 우리를 잘 따라주지만은 않았다. 나눠준 교재는 집에 가져가서 다시 들고 오지 않았고 교재를 훑어보고는 특정 프로그램은 하기 싫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이들의 다양한 연령대와 유동적인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첫날 저녁에 팀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미리 짜놓은 계획을 거의 전면 수정해야만 했고, 실제 상황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날이 갈수록 피곤하고 지치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친해지고 성향을 파악해가면서 프로그램 진행도 점점 수월하게 느껴졌던 것 같다. 가끔은 말도 안 듣고 시끄럽기만 하다가도 '선생님'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오는 아이들과 함께 5일을 보내며 정이 참 많이 들어서 헤어짐이 너무 아쉬웠다. 내가 그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로 불렀지만 내가 보여준 작은 관심에도 사랑스럽게 반응해주었던 아이들에게서 나 역시도 많은 것을 배웠다. 또한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을 통해 우리 팀원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2018년을 의미 있는 일로 시작하게 된 것 같아 뿌듯하다.

지난 학기에 복지행정론 전공수업을 듣고 나서 이번 방학에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하고자 다짐했다. 이화봉사단은 내가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임하게 된 교육봉사 활동이었다. 양남지역아동센터에 도착하여 처음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이들은 낯을 많이 가려서 인지 묻는 말에 대답도 제대로 안하기도 하고, 몇몇 아이들은 나에게 짓궂은 장난을 쳐서 적잖이 당황하기도 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친밀함이 쌓이기 시작하자 “선생님. 선생님.” 거리며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열심히 임해주었다. 센터의 아이들은 대부분 다자녀,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었는데 하루 종일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니 체력적으로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다. 아이들 돌보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깨달았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참 힘들게 키우셨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한번은 어떤 아이가 방학숙제로 일기를 쓰는 것을 봐주었는데 매일 저녁에 쌀국수를 먹는 다기에 “쌀국수를 되게 좋아하나보다.” 하고 말했더니 아이가 “아니요.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 맨날 먹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그 전까지는 딱히 아이에 대한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그 순간 사실 속으로 조금 당황했다.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고 자신이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것은 그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이었는데, 나는 여태껏 무의식적으로 아이들이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래서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부끄러웠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센터의 여러 아이들과 어울리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행위가 곧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4박 5일 동안 프로그램 진행을 잘 따라주었던 아이들과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활동을 잘 마무리한 우리 봉사단 팀원들에게 고맙다. 이번 봉사활동이 스스로 너무 뿌듯하고 좋았던 기억이라 스스로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할 것이라 다짐했다.

센터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안 사실은 시작 시간이나 아이들 인원 등의 정보가 올바르게
않았다는 것이었다.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틀렸다는 생각에 당황했고 프로그램 진행 자체
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되었다. 실제로 첫날 프로그램부터 순서가 꼬여버렸고 즉석에서 팀
원들과의 상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프로그램은 잘 진행되었
고, 다음날부터는 새로운 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진행하였다. 생각보다 아이들
의 나이대가 다양하였고 인원도 많아서 학교에서 준비해준 역사 교안은 수업하기에 난이도
가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이론 수업보다는 만들기와 활동 위주로 진행했다. 아이들을 통제하기 어려웠지만 생각보다
프로그램에 잘 따라와 주어서 고마웠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간 터
라 걱정했었는데, 막상 아이들을 만나보니 그 아이들 역시 다른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음을
깨달았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조금 다를 것이라는 나의 생각이 편견이었음을 알았고, 나
도 모르게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아이들은 여느 아이들과 다
르지 않게 밝고 명랑했으며 누구보다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다. 4박5일간 많이 지쳤고
집에 가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으나 막상 돌아갈 시간이 되니 아이들 한명 한명의 얼굴이 떠
오르며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선생님이 없는 것은 싫다며 결국 울음을 터뜨린 아이
를 보며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했고 봉사를 통해 결국은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웠음을 깨달았다. 센터의 아이들이 앞으로도 밝고 명랑하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나 역시 한층 더 성장했음을 느낀다.